



# 따로 그러나 같이, 축산을 생각합니다

고객홍보팀



**이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중 하나는 유관기관들과의 거리다. 바로 옆, 같은 스카이라인을 공유하게 된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와 옆 건물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옥에 들어선 낙농진흥회, 무엇보다 근거리에 위치하게 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있다. 그리고 이곳, 30여분 거리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하게 됐다.

칼 같이 자르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직접적으로 업무교류를 하는 곳은 아니다. 농축수산물안전국이 있지만 직속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호 전문가인터뷰 릴레이에 이곳을 주목하게 된 것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아닌 식약처에서 등급제 관련

질의가 나왔을 만큼 국민 식생활에 연관된 부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축산물위생안전과다. 게다가 현 축산물위생안전과의 수장인 이성도 과장은 농식품부에서 이동·재직 중인 인물로 축산분야의 ‘통’이라 할 수 있다. 그를 만나 이웃사촌이 된 반가움을 나누는 한편, 우리 축산물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축**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필 딱 국감으로 바쁜 날 찾아뵙게 되네요. 식약처 축산물 위생안전과,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 축산물위생안전과는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도축·집유·가공·보관·운반·판매의 전(全)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먹을거리 안전에 대하여 여러 법령과 기관에 걸쳐 있던 식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정부 조직개편 시 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 안전관리 중 생산과 방역과 연계된 도축검사·집유장 안전관리·농장 HACCP은 일부 농식품부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업무는 농식품부 재직 시나 식약처에서의 재직 시나 같습니다만, 식약처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일부 농식품부에 위탁된 업무로 인하여 제도적인 측면은 우리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축**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추석 대목이지 않습니까? 부정불량 축산물이나 축산물 안전 쪽의 문제가 생기기 쉬운 때란 말이죠. 안 그래도 수입산의 시장점유 확대와 가축질병 등으로 축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음은 저희나 과장님이나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고요.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 지난해에는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닭·오리 도축검사를 영업자 고용수의사가 아닌 공무원 검사관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집유장·유가공장의 HACCP 의무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HACCP 적용 축산물 생산 비율을 확대하고,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염소 등 기타 가축 도축장을 확대(26개소)했으며, 도축장 제빙기 지원사업으로 식육부산물을 저온유통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안전’과 소비자의 ‘심리적 안심’ 사이에 격차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안심 확보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선제적인 의사소통으로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외작업장 신규 승인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물의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국가, 품목별 맞춤형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중국에 우리나라산 우유를 수출하고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축산물의 세계 할랄 시장 수출을 겨냥하여 수출업체와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 우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 또한 축산 위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축산물위생안전과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지요. 정부3.0의 일환으로 우리원이나 여타 축산관계 기관 등이 협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투명한 정부·서비스 정부·유능한 정부라는 전략을 가지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는 국민과 소비자가 축산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우리처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가 식육을 구매할 경우 보는 식육표지판이나 표시사항의 등급 표시도 소비자는 축산물 위생과 연관 지어 구매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국민을 위해 정보의 공유를 제도화하여 서비스하는 정부의 모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 측면에서 우리처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매일 매일의 축산물등급 통계와 가격 상황을 받아 보고 있으며, 이를 축산물 단속 및 감시활동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처에서도 축산물의 위생 검사 실적이나 회수 상황을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축산물 관련 업계에서는 활용해 주신다면 보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기여할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 구매하고 소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 쇠고기의 마블링, 나아가 쇠고기등급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류섭취가 건강악화를 일으키는 낭 치부하는 목소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물전문가로서 관련한 소견을 밝혀주신다면?

**이** 최근 축산물의 안전과 더불어 쇠고기의 마블링 및 삼겹살의 과도한 지방 문제 등이 언론과 방송, 국회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비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영양과 가격 문제를 연계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의 마블링 및 삼겹살의 과도한 지방, 우유 소비의 정제 등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에 소비자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만, 이는 2000년대부터 본격 나타나기 시작한 웰빙문화의 확산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1990년의 경우 식품공급량의 20%(축산물과 어패류 99.5kg/ 총급량 488.6kg) 불과 하던 것이 2013년 약 30%로 25년 만에 총 공급량 측면이나 비율 면에서 대단히 증가했습니다. 국민과 소비자는 육류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너무 자주 접하게 되고 또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식문화와 시대 조류(트렌드)에 따라 당분간 이러한 논란은 더욱 자주 접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문화의 변화나 조리방법 등의 다양화, 가공방법의 다양화와 더불어 새로운 음식문화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 끝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등급정보 365+ 독자에게 한 마디?



**이** 축산물에 있어 위생과 안전, 정확한 품질 평가 및 이력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 축산물의 소비와 구매, 수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시대에는 국내에 여행 오는 여행자, 국내 체류 외국인, 수출하는 제품의 세계인에게도 우리 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품질 평가를 위해 도축장 축산물 냉장실이나 등급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사의 노력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등급판정업무나 축산물 이력제도에 큰 문제 제기 없이 20년을 지속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등급정보 365+ 독자 분들도 우리 축산물은 건강한 동물에서 출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축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한층 업그레이드됨을 느끼실 것이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먼저 알고 변화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정보 365+